

머리글

순례의 미술을 생각하며

- 미술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의 서언 -

지난 겨울 스위스를 잠시 여행한 적이 있었다. 로잔(Lausanne)에서 레한 호수를 따라 몽트리(Montreux)로 갔다가, 거기에서 파노라마 열차를 타고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열차의 종점인 츠바이집멘(Zweisimmen)에 이르게 되었다. 츠바이집멘에서 썰매를 타기 위해 며칠을 머물렀는데, 그 곳에는 개혁신과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 교회당은 얼핏 보면 장식이 별로 없이 수수한 모습인데 유심히 보면 양 벽면에 그림들을 지운 모습이 눈에 띈다. 그 곳을 방문한 스위스 관광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소개한 안내 책자를 보고서 칼빈(Calvin)이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천주교적 유산인 교회의 벽면 성화를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칼빈은 중세 천주교회의 성화와 조각의 문화를 우상숭배적이라고 통박하면서 성도와 교회가 우상숭배와 그것에의 위협에서 벗어나 온전히 성경적인 모습을 지니도록 가르치고 또 스스로 개혁시켜 왔던 것이다.

기독교 예술, 그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 미술은 우상숭배라는 비난과 기독교 문화창달이라는 좋은 취지 사이에 놓여 있다. 그것은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해 왔다. 미술작품의 형성을 우상숭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십계명의 제 2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문화창달의 관점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을 수행하는 일로 본 까닭이다.

전자의 입장에서 본 교부 터툴리안은 ‘미술(예술)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악마의 짓’이라고 했고, 후자의 견지에 서 있는 중세의 천주교와 현대의 기독교 문화운동가들은 미술을 ‘신앙심의 표현’ 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세 기독교나 현대의 기독교 문화운동가들이 취하는 미술에 대한 단순한 인간적인 긍정이다. 우선 중세 천주교와 동방정교는 신자들의 기도와 묵상 등 경건생활에 영감을 주고 그것을 진작시키는 성상들과 미술작품들을 만들어 숭배해 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신앙의 표현’이며 ‘경건생활을 위한 숭배의 대상’이라고 간주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해 왔다. 이를테면 마리아상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상 조각 같은 것이다. 이러한 섬김과 숭배는 분명한 우상숭배였다. 사실 썬병글리가 교회 안의 모든 그림들과 조각들은 다 우상숭배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다지 지나친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현대 기독교 문화운동가들이 세속문화를 비판하면서 미술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것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무턱대고 장려만 하기에는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문화적인 업적 수행에 열심일 때 교회는 영적으로는 시들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세속화되어 있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또 현재 많은 기독교 문

화운동 제창자들은 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는 점이 없지 않다. 아울러 우리는 이들이 문화운동을 말하면서 너무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문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문화에만 치중하고 내적인 정신문화는 간과하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이들은 기독교 문화운동을 소위 껍데기 운동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속적 예술지상주의는 물론 기독교적 예술지상주의도 바로 기독교의 적대자인 것이다.

둘째는 터툴리안 등이 견지하는 미술에 대한 단순한 인간적인 부정이다. 이런 입장은 예배 시에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을 사탄적이라 본 초기 구세군의 입장이나, 경작에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쓰는 것을 비성경적이라 보고 오로지 곡괭이나 쟁기로만 기경하는 극단적인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이 입장은 예술과 문화 전반을 배척하는 자세로 결국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릇된 자세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술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예술’의 창작에 무관심하다. 이러한 입장의 결과는 구속으로 인해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성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까지 포기한다. 또 나아가 예술과 문화의 영역을 포기하므로 그것을 사탄의 휘하에 방치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미술에 대한 이런 단순한 인간적 부정의 자세는 성속(聖俗)에 관한 그릇된 이원론(二元論)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넘어서 세 번째의 입장으로 미술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재공정이 우리의 견지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앞서 미술에 대해 우리가 단순히 긍정할 수도, 또 단순히 부정할 수도 없음을 보았다. 기독교 미술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성화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기반이 없는 형식적 작품과 작품활동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쉬 긍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작품이 숭배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표현이요,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하고 덕을 세우는 일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영육을 만드셨다. 그리고 지상생활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지상의 생활은 배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활동의 영역인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우주적 주권으로서 그 주권 하에는 예술과 문화의 전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주셔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작업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제 1의 창조라면 인간이 예술을 창작하는 것은 제 2의 창조인데, 그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본뜬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모방적 창조력으로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진정한 창조력은 아니고 예술적 창작력인 것이다.

이런 창작력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세계에 설치하시고 부여하신 미(美)의 광맥(鑛脈)을 캐는 작업이다. 길 가에 핀 민들레 한 포기과 흐르는 도랑물 소리같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세계와 온 세상을 새하얗게 뒤덮은 백설의 모습같은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번득이는 미의 광채를 본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 속에 미를 지니지 않으며, 또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미를 산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론 현재 남아 있는 미는 타락 이전의 창조 모습에 비하면 많이 손상되고 상실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이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미술은 죄의 결과로서 상실된 미를 회상하고, 또

남아 있는 미의 모습을 그리며, 나아가 종말 이후에 다가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예상하는 임무를 지닌다. 여기에 기독교 미술의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 우리는 현재의 미에 있어서도 대자연 속에서 단순히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미의 질서 뿐 아니라, 온전함과 거룩함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미를 간과하지 않는다.

하여튼 예술은 타락으로 인해 슬프게도 진정한 미를 상실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술활동을 바르게만 하면 곤핍하고 괴로운 나그네 인생길에 위로가 되고, 또 이 지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풍성함을 창출하기 위해 이번 호의 「통합연구」는 기독교 미술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여기에 집필하신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미의 광맥을 캐는 광부들이요 또 그 광맥을 연구하는 일꾼들이다.

조각가이신 오의석 선생은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이라는 논문에서 기독교 미술의 본질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잘 정리하였는데, 현대 여러 기독교 예술 이론가들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의 글 “십자가 상징의 예술철학”은 십자가 형태의 조각이나 문장이 지니는 의미를 기독교 이전과 이후로 고찰하고 특히 원형 테를 지닌 십자가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와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독일의 저명한 미술사 교수인 Jörg Traeger 선생은 “자연이라는 교회”의 논문에서 개신교는 천주교 대성당의 아치를 부수어 내려 앉게 하고 자연의 교회를 역설했다고 보고 이런 사상이 Runge나 Friedrich, Richter같은 낭

만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칼빈주의적 화가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목사이면서 화가인 이연호 선생은 “한국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라는 주제 하에 신구교를 통틀은 한국 기독교 미술사를 광범위하고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학자인 김은진 선생은 “현대 예술에서의 참된 인간성의 모색”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현대 미술에 내재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며 또 바른 미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화가이신 김석용 선생과 교사이신 김지엽 선생은 좋은 서평을 내어 우리의 학술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미학자, 미술사가, 철학자 등 미술의 이론과 실체에 관한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모인 셈으로 구색을 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미술을 재구성하고 또 그 분야를 통하여 피조세계 속에 담긴 미의 광맥을 캐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미술을 비롯한 예술과 문화 전반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Viator)들이고 또 우리가 하는 미술은 순례의 미술(ars viatorum)인 것이다.

1993년 보리밭이 두 뼘이 자랐을 적
편집인 전 광 식